

3) 박철규(朴澈奎)

1911년 여천군 울촌 반월에서 출생하여 서당 및 교회에서 수학하였다. 1926년 매산학교에 입학하여 정식교과 수업을 받았으며, 그후 일본으로 건너가 1932년 일본 경도성봉중학교를 졸업하였다. 1934년 매산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박형렬과 함께 1931팀으로 영입되어 축구기술 전파와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였다. 1936년에는 일본 유학생팀과의 친선경기에서 그의 실력이 빛을 발하여, 1931팀이 1 대 0으로 이기는 수훈을 세웠다. 그후에도 순천의 축구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다.

1941년 만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1945년 해방이 되어 농업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또다시 학교교육에 헌신하였다. 1950년 8월 1일 광양중·고등학교 교감으로 부임, 1952년 여수중학교 교감 부임, 1953년 순천고 학생과장으로 부임, 1955년 서울중등고등학교 교사로 부임, 1972년 서울중등고 교감, 1975년 중등고 교장으로 10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임하였다.

박철규의 딸인 방송작가 박정란은 아버지의 일대기를 '울밑에선 봉선화'라는 제목으로 극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줌과 아울러 순천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여,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교육계에 투신하여 줄곧 후진 양성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교육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초창기 순천 축구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